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2017: 언캐니 밸리?

DA VINCI CREATIVE 2017: UNCANNY VALLEY?

2017년 인류는 이미 시리나 알렉사 같은 봇(bot)과 대화하며 아침을 시작하고 표정을 인식하는 스마트폰으로 개인형 이모지를 만들어 감정을 공유하고 길 위에 떠다니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광고를 보고 우주 여행을 예약하며 심지어 생명체의 시스템까지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2017: 언캐니 밸리(Uncanny Valley)?」는 이 증강된 삶 속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해 질문한다. 로봇이 점점 인간의 모습과 닮아갈수록 상충하던 호감도가 인간과 구별이 모호한 지점에서 로봇이 기대 밖의 행동을 보일 때 급격히 떨어졌다가 인간과의 구별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면 다시 상승하게 되는 지점 그 사이에 ‘언캐니 밸리’가 있다. 1970년 일본의 로봇공학자 모리 마사히로(Mori Masahiro)에 의해 소개된 언캐니 밸리는 최근 로보틱스(Robotics)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증강/가상현실(AR/VR), 합성 바이올로지(Synthetic biology), 스페이스 테크놀로지(Space Technology) 등의 발달로 증강된 삶이 일상화되고 인간과 기계의 구별이 불가능한 시점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2017: 언캐니 밸리?」는 이 시대의 아트와 테크놀로지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이 제안하는 언캐니 밸리 너머의 평범하지 않은 징후들을 소개한다. 물리적 몸의 한계를 넘어 자유와 통제, 가상성과 물질성이 혼재하는 모한 신체가 등장한다. 인간감각과 기계감각의 경계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증폭되는 새로운 추상이 만들어지고 우주로부터 미생물에 이르는 예상 밖의 공간과 조우한다. 인공 지능 시대에 도구가 아닌 협업자로서의 기계와 의인화된 기계들이 등장하는 영동한 우화로 지금 이 시대의 인간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아직은 인간과 기계를 구분할 수 있는 언캐니 밸리의 마지막 지점에서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2017: 언캐니 밸리?」가 증강현실을 넘어 인간의 몸과 정신 자체가 테크놀로지에 의해 증강될 근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인간다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열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예술감독 최두은

DA VINCI CREATIVE 2017: UNCANNY VALLEY?

김은진 EUNJIN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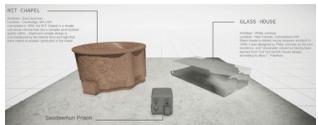
배우가 된 텍스트 The Text that became an Actor



알파벳이 몸짓을 하며 이야기를 건넨다면? 소프트 바디로 제작되어 생명체를 연상시키는 움직임 갖는 ‘3D 애니메이션 폰트’를 개발하여 반영한 이 작품은 문자라는 시각적 기호의 배후로 사라져버린 언어에 몸짓을 다시 부여하는 시도이다. <배우가 된 텍스트>에서는 희곡 『햄릿』의 대사에 움직임의 부여하여, 심오한 질문을 작은 몸짓으로 애써 표현하고 있다.

놀리 NOLLI

공간을 만지다 TOUCH SPACE



<공간을 만지다>는 네거티브화된 공간을 촉감을 통해 경험함으로써 일상 공간의 의외성을 탐구하고 시각을 넘어선 공간 인지에 대해 질문하는 작품이다.

닥드정 DAKD JEONG

형이상한 연못 Pataphysical Pond



‘Pataphysics’는 농담으로서의 과학, 철학 등으로 패러디한 개념을 말한다. 쓸모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풍토가 오히려 과학과 기술의 발전 속도를 늦춘다고 생각했고, 이 쓸모없는 작품을 통해서 과학자들에게 진지한 농담을 던지고 싶었다. 관객들이 연못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가짜인 걸 알면서도 진짜 생명체인 양 쓸데없는 농담을 주고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에게 좀 더 쓸모없는 것, 쓸모없는 공간이 필요하다.

양민하 MINHA YANG

전기적 유영과 시각적 관찰
The Electric Flow and The Optical Observation



<전기적 유영과 시각적 관찰>은 자연물과 인공물의 중간 지점을 찾아내 시각적 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전기 신호로 치환하는 작품이다. 양안으로 분리 입력된 영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형되고 조작되어 두 개의 스크린에 투사된다.

후원. 올림푸스한국(sponsored by OLYMPUS KOREA CO., LTD.)
촬영. 올림푸스 3D 복강경(shot by OLYMPUS 3D laparoscope)

작가와 작품 Artists and Artworks

다빈치 아이디어 지원작가

우주+림희영 UJUO+LIMHEEYOUNG

호모 캐피탈리쿠스 Homo Capitalicus



<호모 캐피탈리쿠스>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나는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인간에 대한 좌절이나 절망감,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오는 혼란스러움은 ‘인간성의 회복은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품게 한다.

이성은 이승민

JOSEF LEE, DANIEL SEUNGMIN LEE

에테리얼: 지극히 가볍고 여린
Ethereal: Too Perfect for This World



‘에테리얼’의 사전적 의미는 ‘지극히 가볍고 여린’으로, 우리의 존재도 지금 이 곳에 존재함을 진실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내 신체를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이 있어야만 나는 유령이 아닌 것이다. <에테리얼: 지극히 가볍고 여린>은 관객이 그들 뒤에 서있는 로봇을 통해 스스로의 몸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로, 관객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만져보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이재형 박정민

JAEHYUNG LEE, JUNGMIN PARK

기계 즉흥곡 Machine - Impromptu



오싹이 그려진 물고기 어항은 자연의 우연성을 만들어 주는 생체 난수 생성기이자 기계를 동작시키는 트리거이며,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악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어 ‘인간성의 회복은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품게 한다.

팀보이드 teamVOID

빛결 연작 Wave Series



<Wave Series>는 수백 개의 모터와 라이팅(Lighting)의 조합을 통해 빛의 움직임을 형상화하여 다차원적 시각 경험을 유도하는 키네틱 라이트 작업이다. 요소들의 관계에서 표출되는 패턴을 빛의 물결의 형태로 표현하며, 이를 통해 ‘단위’와 그들 간의 ‘관계’로 구현되는 ‘시스템’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Wave Series>에서는 3가지 다른 형태의 구성을 보여줌으로써 작업의 확장성과 가능성을 실험한다.

초청작가

에두아르도 카츠 EDUARDO KAC

이너 텔레스코프 Inner Telescope



<이너 텔레스코프>는 에두아르도 카츠의 선도적 작품으로, 프랑스 우주인 토마 페스케(Thomas Pesquet)가 예술가의 지시에 따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제작하였다. 무중력상태를 고려하여 구성되었으며, 재료는 우주정거장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위아래, 앞뒤가 없는 형태의 이 작품을 특정한 각도에서 바라보면 프랑스어 “MOI”(“나” 혹은 “나 자신”)이라는 의미로 보이지만 다른 각도에선 텃밭이 잘린 인간의 형상으로 보인다. “MOI”는 집단적인 자아를 나타내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성이란 무엇인가를 환기하고 있으며, 잘린 텃밭은 인간이 종족의 한계에서 해방을 표상한다.

제이에프 말루앵 JF MALOUIN

미의 세 여신 Les Trois Grâ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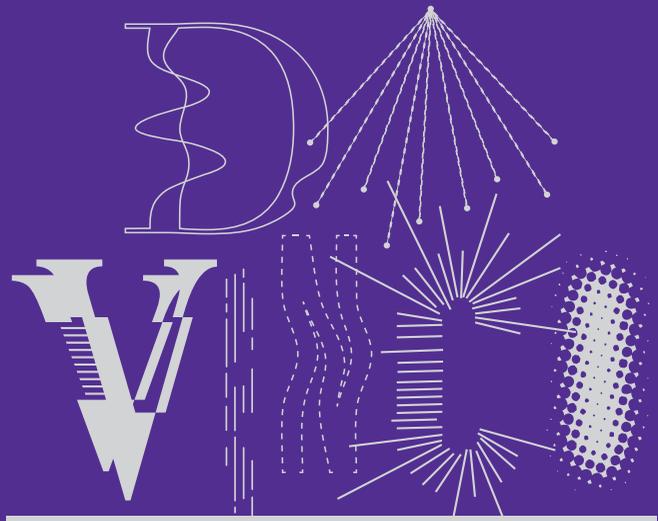
<미의 세 여신>은 하나의 존재로서 몸성(corporeality)을 가상현실상에서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작품에서는 터치 안에 함축된 채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투쟁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작가는 신체상의 프론티어(frontiers)와 영토성(territoriality)으로 무던 침입하는 현상을 탐구한다. 하나의 조각으로서, 이 작품의 대상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다. 그 결과, 우리는 친밀함의 정도(intimate proportions)에 따른 끈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2017

10.20 Fri -
11.05 Sun

ArtXTechnology
FESTIVAL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페스티벌 나잇

10,20(금) - 21(토) 4 - 10pm

전시

언캐니 밸리? Uncanny Valley?

10,20(금) - 11,5(일) 10am - 6pm

* 페스티벌 나잇 기간에는 4 - 10pm

렉처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다

10,21(토) 4:00 - 5:30pm

워크숍

라운드 패턴 아트 워크숍

10,20(금) - 10,21(토) 4 - 8pm

주최. 서울문화재단

파트너. KAMERA, GALO, OLYMPUS, NOVOTEL, AUCOON, NYLON

초대의 글 Welcoming Remarks

〈다빈치 크리에이티브〉페스티벌은 금천예술공장이 자리 잡은 인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첨단산업도시’라는 지역적 정체성에서 출발하여,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이자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처럼 예술과 기술의 경계에 선 예술가들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명명되었습니다.

창조산업, 4차산업혁명의 구호가 넘치기 전인 2010년 서울문화재단의 작은 지원사업에서 출발한 〈다빈치 크리에이티브〉는 8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미디어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ARTEC'97에서 24세의 나이에 그랑프리를 수상한 후루이케 다이스케(Furuike Daisuke)는, 일본의 소도시에서 성장하면서 인근 미술관에서 보았던 어느 미디어아트 전시를 통해 ‘예술가’가 될 것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봉제공장과 사무빌딩, 주거지가 뒤섞인 이곳, 조선족 근로자와 인도인 프로그래머를 흔히 마주치는 금천구의 풍경... 이곳의 청소년들은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을 통해 어떤 미래의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빠르게 변하는 기술의 시대에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품게 되는 지금,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예술은 테크놀로지에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가를 이 행사를 통해 예감해주시시오. 미래의 기술과 예술의 만남이 서울시민을 더 즐겁고 다 행복하게 만들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철환



페스티벌 나잇 FESTIVAL NIGHT

빌 본 & 루이-필립 데메르
BILL VORN & LOUIS-PHILIPPE DEMERS
인페르노 Infer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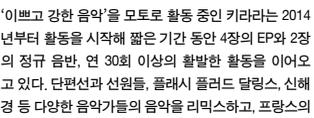
〈인페르노〉는 관객참여형 로봇퍼포먼스로, ‘통제’와 ‘지옥’의 개념에서 영감을 받았다.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지옥의 원(Circle of Hell)’에서, 자신을 기계라고 여기는 소년인 등장하는 논문 〈조이: 기계 소년 (Joey: The Mechanical Boy)〉, 싱가포르의 테마파크 ‘호파 빌라(How Par Villa)’에 있는 놀이시설 ‘지옥의 심판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신체는 외부의 힘에 통제되고 고통을 받으며, 그 신체는 무한반복하며 움직이게끔 강제된다. 작품에 등장하는 ‘지옥의 원’은 각각 다른 주제의 퍼포먼스를 재현하는 틀로 기능한다.

허만 콜겐 HERMAN KOLGEN
임팩트 IMPAKT



어떻게 잔인한 충격이 우리 눈앞에서 확장될 수 있을까? 폭력을 통해 숭고미가 구현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허만 콜겐의 새로운 작품 〈임팩트〉에서 탐색한 주제이다. 무대에 설치된 발사체는 목표물을 타격하며, 그 속도와 궤적, 그리고 포탄의 충격은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작품 속 가상의 신체에 재전송된다. 콜겐은 라이브로 진행되는 조작을 통해 해당 신체를 정지 및 우중력, 그리고 시적인 우아함이 존재하는 상태에 가져다 놓음으로써 점차 극단적인 폭력과 압박한 파괴에서 살짝 비켜난다.

키라라 KIRARA



‘이쁘고 강한 음악’을 모토로 활동 중인 키라라는 2014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짧은 기간 동안 4장의 EP와 2장의 정규 음반, 연 30회 이상의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단편선과 선원들, 플래시 플러드 달링스, 신해경 등 다양한 음악가들의 음악을 리믹스하고, 프랑스의 ‘뉘 소노르(Nuits Sonores) 페스티벌 2016’에 초청되는 등 활동 영역과 인지도를 넓혀가던 그는 2017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댄스&일렉트로닉 음반상을 수상하였다.

히치하이커 HITCHHIKER



술한 화제를 낳은 ‘11(ELEVEN)’ 뮤직비디오의 주인공. 본명은 최진우로, 1994년 ‘지누’로 솔로활동을 시작하여 3인조 밴드 클러스타의 베이시스트로서 작·편곡과 프로듀싱, 소녀시대·EXO·동방신기·샤이니·에프엑스·빅뱅·2NE1 등과 일하며 최고의 프로듀서로 평가받았다. 그는 2014년부터 가상의 월드스타인 ‘히치하이커’라는 캐릭터로 활동하며 일상의 소리를 수집해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독창적 스타일을 인정받았다.

알랭 티보 ALAIN THIBAUT



알랭 티보는 작곡가이자, 사운드 디자이너, 일렉트로닉 뮤직 아티스트이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디지털 아트 분야의 연례 페스티벌인 ELEKTRA와 국제 비엔날레 BIAN의 창립자이며, 디지털 아트와 일렉트로닉 뮤직, 그리고 사운드 아트 분야를 넘나들며 큐레이터와 예술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렉처와 워크숍 Lecture and Workshop

*렉처 및 워크숍 사전등록은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공식 홈페이지 www.davincicreative.org에서 가능합니다.

렉처 / 10.21(토) 4:00 - 5:30pm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다
Rethinking the Human-Machine Relationship
사회: 최두은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2017 예술감독)

발제 1.
인간이 만든 기계 〈인페르노〉의 퍼포먼스:
복종과 해방을 넘어선 역할
* 빌 본 & 루이-필립 데메르 Bill Vorn & Louis-Philippe Demers,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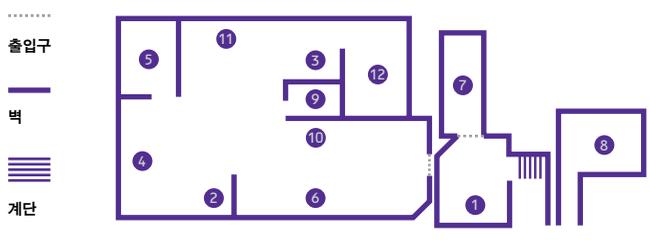
발제 2.
리빙 박테리아:
합성 바이오 아트의 새로운 미디어
* 탈 다니노 Tal Danino, 미국

발제 3.
모션을 창조하라!:
산업용 로봇(KUKA)을 이용한 미학적 실험
* 팀보이드 teamVOID, 한국

워크숍 / 10.20(금) - 10.21(토) 4 - 8pm

라운드 패턴 아트 워크숍
진행: 강병수 Byongsue Kang
대상: 1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모든 관객
*워크숍 준비물 등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배치도 MAP



- 1 김은진 EUNJIN KIM
- 2 놀리 NOLLI
- 3 닥드정 DAKD JEONG
- 4 양민하 MINHA YANG
- 5 에두아르도 카초 EDUARDO KAC
- 6 우주+림희영 UJU+LIMHEEYOUNG
- 7 이성은 이승민 JOSEF LEE, DANIEL SEUNGMIN LEE
- 8 이재형 박정민 JAEHYUNG LEE, JUNGMIN PARK
- 9 제이예프 말루엣 JF MALOUI
- 10 탈 다니노 TAL DANINO
- 11 팀보이드 teamVOID
- 12 퓨어폼-알랭 티보 & 얀 브뤼류 Purform- Alain Thibault & Yan Breuleux

기획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본부장 이규석) | 예술감독 최두은
실행 금천예술공장 | 매니저 김희영 | 기획·운영 김수아, 이현, 김하경 | 홍보·장정원 | 작가지원 신주훈, 문재욱
시설·관리 이의국, 이용찬, 정병채, 김경희, 조기춘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2017 지원
전시 홈페이지 | 렉처·워크숍 이수빈 | 디자인 김예지 | 기술지원 홍민희 | 번역 문영주
티저 하나하나 | 디자인업체 트라이앵글·스튜디오 | 발행처 서울문화재단 | 발행인 주철환 | 발행일 2017.10.20

주소,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5길 57 (독산동) | 홈페이지, www.davincicreative.org
문의, 02 - 807 - 4800 | 페이스북, www.facebook.com/davincifestival

타임테이블- 페스티벌 나잇 Timetable- FESTIVAL NIGHT

Day 1. 10.20(금)			
행사	시간	내용	장소
	18:00	로봇틱스 퍼포먼스 〈인페르노〉 빌 본 & 루이-필립 데메르	창고 스테이지
	18:30	개막식	
메인 프로그램	18:50	A/V 퍼포먼스 〈임팩트〉 허만 콜겐	오픈 스테이지
	19:40	EDM 콘서트 1 키라라	
	20:10	EDM 콘서트 1 히치하이커	창고 스테이지
워크숍	16:00 - 20:00	라운드 패턴 아트 워크숍 강병수	워크숍룸

Day 1. 10.21(토)			
행사	시간	내용	장소
렉처	16:00 - 17:30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다” 빌 본 & 루이-필립 데메르 탈 다니노 팀보이드	렉처룸
	18:00	로봇틱스 퍼포먼스 〈인페르노〉체험 (1시간) 빌 본 & 루이-필립 데메르	창고 스테이지
메인 프로그램	19:00	디제이 파티 알랭 티보	오픈 스테이지
	20:00	로봇틱스 퍼포먼스 〈인페르노〉체험 (1시간) 빌 본 & 루이-필립 데메르	창고 스테이지
워크숍	16:00 - 20:00	라운드 패턴 아트 워크숍 강병수	워크숍룸